



농촌진흥청, 대미 수출 '한국배' 품질관리 교육 진행

- 7월 한 달간 전국 4개 권역 맞춤형 교육 추진
- 농가, 생산자단체 대상...병해충 방제·농약 안전사용 교육
- '재배-방제-안전' 통합 해법 제공...수출 현장 대응력 강화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미국 수출 '한국배'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, 점차 강화되는 미국 검역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'대미 수출 배 농가 대상 권역별 품질관리 및 농약 안전사용교육'을 추진한다.

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배수출연합, 도원 및 시군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배 수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농산물의 안전한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.

전국 4개 권역에서 배 수출 농가와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영상으로 진행한다.

권역 교육 일정은 △전라권 7월 7일 △충청권 7월 9일 △경기권 7월 14일 △경상권 7월 16일이다.

주요 교육 내용은 미국 수출 배의 농약안전사용,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, 품질관리 기술, 현장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이다.


최근 수출 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는 안전성 관리 기준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'재배-방제-안전'을 통합한 해법 제공 중심으로 교육한다.

한편, 미국은 우리나라 배 수출액의 약 61%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, 2025년 기준으로 대미 배 수출 규모는 약 3,600만 달러에 이른다.

최근 미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. 이러한 규제 강화로 통관절차가 지연되면, 신선 농산물의 경우 선도 유지와 품질관리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.

농촌진흥청 최광호 기술협력국장은 “수출농산물 안전관리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”라며 “지속적인 현장 맞춤형 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해 케이(K)-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대미 배 수출 농가 대상 권역별 품질관리 교육 지원 계획

담당부서	기술협력국 수출농업기술과	책임자	과 장	안옥현 (063-238-0670)
		담당자	연구사	강민혜 (063-238-0685)
				



□ 배경 및 필요성

- 대미 배 수출은 약 3.6천만\$(전체 수출액 5.9천만\$의 61%) 규모의 주요 수출시장('25)
- 최근 10년간 미국 배 수출단지 13개소 중 2개소에서 미국 수출 불허 농약이 검출되어 레드리스트(통관시 검사강화 원칙)에 등재
 - * '25년 8월 이후 미국 통관 단계에서 레드리스트 등재 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
- 레드리스트 해제를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 및 교육 지원 확대 필요

□ 주요내용

- (목적) 한국배수출연합의 농가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요구 대응을 위한 재배-방제-현장지원 통합 솔루션 기술교육 제공
- (대상) 권역별 배 수출 농가,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 40여 명
- (방법) PC 또는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교육^{통합조직 협업}(Zoom 접속)
 - * 참석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접속 및 이용 안내 예정

□ 교육일정

권역별	일시	교육 과목	컨설턴트
전라권	7. 7.(화) 14:00~16:00	미국 수출 배 통관 합격률 향상을 위한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교육	최진호 前 연구관 (사)한국과수협회
충청권	7. 9.(목) 14:00~16:00		
경기권	7. 14.(화) 14:00~16:00		
경상권	7. 16.(목) 14:00~16:00		